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우 미 경

박 영 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 423명이 참여하여 부와 모의 심리통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네 영역의 자아존중감-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족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을 평가하였다. 아동들이 부와 모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나타내었고,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회귀분석과 매개효과분석 결과, 부와 모의 심리통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 가운데 특히 학교 자아존중감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통제는 아동들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돕기 위해서 지양되어야 할 양육방식으로 시사된다.

주요어 : 부모의 심리통제, 자아존중감,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아동

* 본 연구는 우미경의 석사학위논문(2012년 2월, 지도교수 박영신)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영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E-mail : yoshpark@knu.ac.kr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과 낮은 아동들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내 보인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특성이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만족하며, 자신의 강점 및 약점을 잘 인식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은 자신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자신의 강점보다 약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Shaffer, 2005). 게다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므로 자신의 지각이나 판단을 믿고, 문제가 있어도 노력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반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은 자신의 지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소극적이고 사회적 활동에도 잘 참여하지 못한다(Coopersmith, 1967).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아동들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이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일생동안 변화하고 발달하지만 특히 아동기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현실적이 되면서(Harter, 1982) 안정된다. 이러한 발달과정에는 아동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이 연구되어 왔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킨다는 사실을 밝혀왔다(Gecas & Schwalbe, 1986; Isberg, Hauser, Jacobson, Powers, Noam, Weiss-Perry, & Follansbee, 1989;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행동 이외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양육행동은 심리통제이다. 심리통제란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발달에 개입하는 통제방식으로 자녀의 생각, 감정, 자기표현이나 부모에 대한 애착을 간섭하고 조종하는 양육행동이다(Barber, 1996, 2002). 부모의 심리통제는 은밀한 방법, 즉 자녀가 무력한 느낌을 갖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랑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심리적 발달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이 자신의 영역으로 여기는 생각, 느낌,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다(Barber & Harmon, 2002).

실제 부모의 심리통제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Beane, Bush, McKenry, & Wilson, 2003; Conger, Conger, & Scaramella, 1997; Litovsky, & Dusek, 1985). 청소년들에게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수용-거부, 심리적 자율-통제, 약한 통제-엄한 통제의 세 차원으로 보고하게 하였을 때 부와 모의 심리적 자율-통제 차원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부와 모의 심리적 자율-통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부와 모가 심리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

다(Litovsky et al., 1985). 마찬가지로 유럽계나 아프리카계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지지, 행동통제와 심리통제의 세 차원으로 보고하게 하였을 때에도 역시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부정 상관을 보였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잘 예측하였다(Beau et al., 2003). 이처럼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다.

자아존중감은 특히 아동기에 안정될 뿐 아니라,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지속적으로 여러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통제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에서와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부모의 심리통제는 자녀들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관련되는 여러 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녀들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녀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과정이나 기제를 이해하여야 한다(Barber, Bean, & Erickson, 2002).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유력한 변인 가운데 하나는 완벽주의이다. 일찍이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세분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란

스스로에게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엄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실패를 피하기 위해 애쓰는 경향을 말한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란 중요한 타인들에게 비현실적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란 중요한 타인들이 부과한 기준이나 기대를 이루고자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후에 Campbell과 Di Paula(2002)는 이 가운데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완벽주의적 노력(perfectionistic striving)’과 ‘완벽해지는 것의 중요성(importance of being perfect)’의 두 차원으로 더 구분하였다. 전자는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며 후자는 완벽해지는 것의 중요성 및 완벽해지려는 욕구를 나타낸다. 그런데 성인들에서는 ‘완벽주의적 노력’은 긍정적 정서, 외향성, 개방성이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이나 부정적 정서와는 부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반해 ‘완벽해지는 것의 중요성’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상관을 보였다(Ashby & Rice, 2002; Campbell & Di Paula, 2002). 유사하게 ‘완벽주의적 노력’이 긍정적 정서, 자아존중감, 적응적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완벽해지는 것의 중요성’은 부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Stoeber & Child, 2010).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실패 후 경험하는 정서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완벽주의적 노력’은 실패 후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나 자긍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완벽해지는 것의 중요성’은 실패 후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신지은, 이동귀, 2010). 이런 결과들은 ‘완벽주의적 노력’은 자기 지향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이고 ‘완벽해지는 것의 중요성’은 부정응적 측면임을 보여준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을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로 명명하고(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Shafran & Mansell, 2001)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문제가 있는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형성된다. 일찍이 Hamachek(1978)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수행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녀의 수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이 인정하던지 또는 자녀의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에만 조건적으로 인정할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발달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Blatt(1995)도 자녀들이 부모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기대를 만족시켜야지만 자기를 인정해준다고 생각할 때 높은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이에 집착하는 비합리적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안하였던 부모들의 특성은 심리통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특성들로서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녀들이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발달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부와 모의 심리통제는 청소년과 성인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잘 예측하였을 뿐 아니라(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b),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전이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재역할을 하였다(Soenens, Elliot, Goossens, Vansteenkiste, Luyten, & Duriez, 2005a). 또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들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서 어머니가 심리통제를 많이 할수록 초등학교생들이 자기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김희영, 박성연, 2008).

이처럼 선행이론이나 연구들은 한 편으로는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녀의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의미있는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Soenens 등(2005b)이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였을 때 부모의 심리통제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통제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자아존중감이 감소되었다.

연구의 목적 및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부와 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아동들의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Soenens 등(2005b)의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 부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완벽주의가 동일하게 매개역할을 하는지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한다. 완벽주의는 부모 양육행동이 초등학교생들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김경미, 도현심, 박선영, 2010), 청소년에서처럼 의미있는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Soenens 등(2005b)의 연

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통제를 통합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통제를 구분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또한 Soenens 등(2005b)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네 하위영역(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 총 445명이 참여하였다. 5학년과 6학년 아동들을 선정 한 이유는 이 시기가 되면 아동들이 자신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통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에 대해 자기보고식 평가를 신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부모의 심리통제 척도에서 부의 심리통제 척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22명을 제외한 423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도구

부모의 심리통제 척도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6개 영역을 측정하는 16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아동들이 부모의 심리통제를 3점 척도로 보고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감정을 제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자녀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심리적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척도의 Chronbach α 는 부의 심리통제가 .84, 모의 심리통제가 .81이었다.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척도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Flett, Hewitt, Boucher, Davidson과 Munro(2000)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완벽주의 척도(CAPS)를 번안하여 수정한 이재연(2004)의 척도에서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Campbell과 Di Paula(2002)의 성인용 완벽주의 척도의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문항을 참고하여 이재연의 척도 22문항 가운데에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평가한다고 판단되는 8문항을 선정하여 요인분석으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직교회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의 결과, 고유값이 1.0이상이고, 요인적재치가 0.50 이상인 5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은 ‘나는 항상 최고가 되지 못할까봐 걱정 된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미쳐버릴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에서 한 가지라도 실수를 한다면 나는 당황스럽다’,

‘내가 합격했다더라도 우리 반에서 1등을 하지 못했다면 실패했다고 느껴진다’, ‘나는 완벽하지 못했을 때 참을 수 없다’였다. 아동들이 자신의 완벽주의 정도를 4점 척도로 보고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아서 완벽해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Chronbach α 는 .80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제작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에 대한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평가로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의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즉,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가를 말한다.

학교 자아존중감은 학업적 평가는 물론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함을 포함하여 학생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총 32 문항으로 구성되며 아동들이 자아존중감을 5점 척도로 보고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hronbach α 는 전체 자아존중감 .89, 일반적 자아존중감 .79, 사회적 자아존중감 .87, 가정적 자아존중감 .86, 학교 자아존중감 .68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1년 7월에 2주 동안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연구에 협조하기로 한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에 참여할 학급의 교사들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실시방법, 소요 시간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였고, 교사가 아동들에게 집단으로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둘째,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 자아존중감과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일반적 경향과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고 매개효과 유의성을 Sobel Test(1982)로 검증하였다.

결 과

부모의 심리통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계수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와 모의 심리통제는 전체

표 1. 부모의 심리통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i>M(SD)</i>	1	2	3	4	5	6	7
1. 부 심리통제	23.05(5.49)	-						
2. 모 심리통제	25.94(5.36)	.58**	-					
3.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10.42(3.51)	.33**	.41**	-				
4. 전체 자아 존중감	110.91(14.63)	-.27**	-.32**	-.22**	-			
5. 일반적		-.09	-.11*	-.04	.80**	-		
6. 사회적		-.09	-.08	-.00	.81**	.64**	-	
7. 가정적		-.29**	-.32**	-.11*	.84**	.66**	.57**	-
8. 학교		-.31**	-.40**	-.49**	.46**	.11*	.11*	.17**

* $p < .05$, ** $p < .01$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r = -.27, p < .01$; $r = -.32, p < .01$) 하위 영역 중 가정적 자아존중감($r = -.29, p < .01$; $r = -.32, p < .01$), 학교 자아존중감($r = -.31, p < .01$; $r = -.40, p < .01$)과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들이 부와 모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전체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특히 가정이나 학교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부와 모의 심리통제는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와도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서($r = .33, p < .01$; $r = .41, p < .01$), 아동이 부와 모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전체 자아존중감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 = -.22, p < .01$), 하위 영역 중 가정적 자아존중감($r = -.11, p < .05$)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교 자아존중감($r = -.49, p < .01$)과는 상당히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전체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특히 학교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부와 모의 심리통제나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전체 자아존중감보다 학교 자아존중감과 훨씬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 보였다.

부와 모의 심리통제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와 완벽주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표 2와 3에 제시하였다. 심리통제는 전체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을 각각 11%($R^2 = .11, p < .01$), 12%($R^2 = .12, p < .01$), 17%($R^2 = .17, p < .01$) 설명하였고, 학교 자아존중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는 전체 자아존중감($\beta = -.13, p < .05$; $\beta = -.24, p < .01$), 가정적 자아존중감($\beta = -.15, p < .01$; $\beta = -.24, p < .01$), 학교 자아존중감($\beta = -.12, p < .05$; $\beta = -.33, p < .01$)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부의 심리통제보

표 2.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 심리통제의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R^2	F
전체 자아존중감		부 심리통제	-.13	-2.38*	.11	27.10**
		모 심리통제	-.24	-4.32**		
하위영역	일반적	부 심리통제	-.04	-.60	.01	2.72
		모 심리통제	-.09	-1.49		
	사회적	부 심리통제	-.07	-1.15	.01	2.16
		모 심리통제	-.05	-.75		
	가정적	부 심리통제	-.15	-2.69**	.12	28.43**
		모 심리통제	-.24	-4.21**		
	학교	부 심리통제	-.12	-2.16*	.17	43.19**
		모 심리통제	-.33	-6.15**		

* $p < .05$, ** $p < .01$

표 3.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단순회귀분석

		β	t	R^2	F
전체 자아존중감		-.22	-4.51**	.05	20.38**
하위영역	일반적	-.04	-.91	.00	.83
	사회적	-.00	-.01	.00	.00
	가정적	-.11	-2.29*	.01	5.24*
	학교	-.49	-11.55**	.24	133.35**

* $p < .05$, ** $p < .01$

다는 모의 심리통제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도 전체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을 각각 5%($\beta = -.22$, $p < .01$), 1%($\beta = -.11$, $p < .05$), 24%($\beta = -.49$, $p < .01$) 설명하였다. 부와 모의 심리통제와 마찬가지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도 학교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앞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전체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이 각각 부와 모의 심리통제나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전체 자아존중감과 두 하위 영역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전체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의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전체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아동이 지각한 부의 심리통제와 전체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검증절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부의 심리통제가 매개변인인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33, p < .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부의 심리통제가 준거변인인 전체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 = -.27, p < .01$). 세 번째 단계에서 부의 심리통제와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인인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준거변인인 전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 -.14, p < .01$).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부의 심리통제가 전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 Sobel Test 결과, Z 값이 $-2.61(p < .01)$ 로 유의하여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부의 심리통제와 전체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통제와 전체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검증절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모의 심리통제가 매개변인인 부정응적 자

표 4. 부의 심리통제와 전체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단계	내용	β	t	R^2	F
1	부 심리통제 →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33	7.05**	.11	49.73**
2	부 심리통제 → 자아존중감	-.27	-5.84**	.08	34.10**
3	부 심리통제 → 자아존중감	-.23	-4.64**	.09	21.44**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 자아존중감	-.14	-2.86**		

* $p < .05$, ** $p < .01$

표 5. 모의 심리통제와 전체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단계	내용	β	t	R^2	F
1단계	모 심리통제 →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41	9.20**	.17	84.54**
2단계	모 심리통제 → 자아존중감	-.32	-6.93**	.10	47.99**
3단계	모 심리통제 → 자아존중감	-.28	-5.53**	.11	26.17**
	부정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 자아존중감	-.10	-2.00*		

* $p < .05$, ** $p < .01$

가지향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41, p<.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모의 심리통제가 준거변인인 전체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32, p<.01$). 세 번째 단계에서 모의 심리통제와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준거변인인 전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고($\beta=-.10, p<.05$),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모의 심리통제가 전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Sobel Test 결과, Z 값이 -1.95로 관습적 유의도 .05의 Z 값 -1.96에 근접하였다.

학교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통제와 학교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검증절차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부의 심리통제가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33, p<.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부의 심리통제가 준거변인인 학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31, p<.01$). 세 번째 단계에서 부의 심리통제와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준거변인인 학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고($\beta=-.44, p<.01$) 부의 심리통제의 영향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 Sobel Test 결과, Z 값이 -5.70($p<.001$)으로 유의하여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부의 심리통제와 학교

표 6. 부의 심리통제와 학교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단계	내용	β	t	R^2	F
1단계	부 심리통제 →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33	7.05**	.11	49.73**
2단계	부 심리통제 → 학교 자아존중감	-.31	-6.69**	.10	44.70**
3단계	부 심리통제 → 학교 자아존중감	-.17	-3.80**	.27	76.04**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 학교자아존중감	-.44	-9.86**		

** $p<.05$, ** $p<.01$

표 7. 모의 심리통제와 학교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단계	내용	β	t	R^2	F
1단계	모 심리통제 →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41	9.20**	.17	84.54**
2단계	모 심리통제 → 학교 자아존중감	-.40	-9.00**	.16	81.01**
3단계	모 심리통제 → 학교 자아존중감	-.24	-5.36**	.29	85.41**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 → 학교 자아존중감	-.39	-8.69**		

* $p<.05$, * $p<.01$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통제와 학교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검증절차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모의 심리통제가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41, p<.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모의 심리통제가 준거변인인 학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40, p<.01$). 세 번째 단계에서 모의 심리통제와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준거변인인 학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고($\beta=-.39, p<.01$) 모의 심리통제의 영향력도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다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

Sobel Test 결과, Z 값이 $-6.30(p<.001)$ 으로 유의하여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모의 심리통제와 학교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이 부와 모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전체 자아존중감이 떨어져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 결

과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이은경, 박성연, 2010; Bean et al., 2003; Conger et al., 1997; Litovsky, & Duseck, 1985)의 결과를 아동에게로 확장하는 것으로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해주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은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통제로부터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다. 또한 아동들이 부모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았을 뿐 아니라,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이런 결과도 아동이 자율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부모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고, 부모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보다 학업성취가 우수하거나 부모의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에 조건적으로 인정한다고 지각할 때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던 연구들(김희영, 박성연, 2008; 전숙영, 2007; Soenens, 2005a, 2005b)이나 부정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던 기존의 연구들(Ashby & Rice, 2002; Campbell & Di Paula, 2002)을 지지한다.

둘째, 부의 심리통제가 전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모의 심리통제에서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매개효과의 Z 값이 -1.95 로 관습적 유의수준의 Z 값인 -1.96 에 거의 근접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결과는 Soenens 등(2005b)의 결과를 아동에게까지 확장해 내려가

는 것으로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청소년이나 성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들에게도 의미있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부모의 심리통제가 전체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정도가 8%~10% 정도로 비교적 낮았고, 더 중요하게는 심리통제와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 모두를 예측 변인으로 하였을 때와 부모의 심리통제만을 예측변인으로 하였을 때 전체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정도에 큰 차이가 없어서 비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문제는 본 연구에서 평가된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가운데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척도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리통제나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관련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또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서 부모의 심리통제와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전체 자아존중감보다는 오히려 특정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에서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을 분석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통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 가운데 학교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일반적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심리통제는 아동들의 자신에 대한 전반적 평가나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와는 관련이 없었으나, 가정생활에서의 자신이나 성취와 관련된 자신

에 대한 평가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 편으로는 아동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학교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한 편으로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학업과 관련된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던 여러 연구들(Barber & Harmon, 2002; Bean et al., 2003)과 맥을 같이 할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통제가 부정적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학교 자아존중감이 역할을 할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중요하게는 아동들의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학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서 가설 2를 지지하였다. 즉,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높아져서 학업과 관련되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비합리적 요구를 가지게 되며, 이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때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이 됨으로써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학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발견하였던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넷째, 부모의 심리통제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버지의 심리통제보다 전체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더 큰 상관을 보였고, 회귀분석에서도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을 뿐 아니라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

의 매개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향력이 더 큰 변인임을 재확인해주는 결과이며(도현심, 최미경, 1998),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어머니보다 덜 참여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과 더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Shek, 2008). 이처럼 부와 모의 심리통제는 영향력이 다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통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부와 모의 심리통제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하고, 타당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가 학교심리학이나 부모교육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의를 살펴보겠다. 부모의 심리통제가 학교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고,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성적지상주의, 학력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발달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대부분의 우리 부모는 교육열이 높고 자녀가 우수한 성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수한 학업성취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 따라 유관적으로 인정하거나 애정을 제공하는 등의 심리통제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들은 자신의 수준, 능력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완벽함을 중요시하고, 성취의 결과에 따라 자신을 비판하게 되므로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보도록 만

들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심리통제가 어떤 양육인지, 자녀들의 발달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발달시키고, 그로 인해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심리통제를 지양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이 연구에서는 Hewitt과 Flett(1991)이 제안하였던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완벽주의 가운데 부정적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부모의 심리통제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는 연구가 많았고,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녀들에게 비합리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발달시켜서 자녀들이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잃게 되는 통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타인들이 부과한 기준이나 기대를 이루고자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도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두 하위 요인·타인의 높은 기준과 '조건적 수용'·가운데 특히 '조건적 수용'은 자아존중감이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이나 부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Campbell & Di Paula, 200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완벽주의가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아동에게 중요한 성인이나 타인이 부과하는 완벽주의가 자아존중감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못한 한계점이 있다.

특히, 부모의 심리통제와 관련하여 아동 내부에서 부과되는 완벽주의와 외부에서 부과되는 완벽주의 가운데 어떤 변인이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또 다른 제한점은 완벽주의를 평가하는 척도의 타당도를 요인분석으로 확인하였고, 척도의 내적 일치도도 상당히 높기는 하였지만 의미가 부정확한 문항이 있었고, 문항 수가 적어서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이 모의 심리통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한점을 배경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제안해 보겠다. 우선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심리통제를 사용하는 정도나 부모의 심리통제가 아동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이나 사회계층에 속한 초등학교 아동들을 포함시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도 지적하였듯이(이은경, 박성연, 2010)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녀의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나아가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아동들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낮아서 부모가 심리통제를 덜 사용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실제,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

을 미쳤지만, 역으로 청소년의 행동이 1년 후의 부모가 심리통제를 사용하는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기도 하였다(Shek, 2007), 따라서 부모의 심리통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인과적 영향력을 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부적응적 자가지향 완벽주의 외에도 부모의 심리통제와 초등학교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이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성향 및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경, 박성연, 2010).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 도현심, 박선영 (2010). 부모의 양육행동, 남녀 아동의 완벽주의 및 성취동기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31(2), 209-227.
- 김희영, 박성연 (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15-131.
- 도현심, 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9(2), 19-33.
- 세퍼, D. R. (2005). *발달심리학*.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지은, 이동귀 (2010). 학업우수 청소년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실패 후 정서: 목표지

- 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911-933.
- 이은경, 박성연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7-106.
- 이재연 (2005).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분노표현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Ashby, J. S. & Rice, K. G. (2002) Perfectionism,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2), 197-203.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2002). Reintroduc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3-13). Washington, DC: APA.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15-52). Washington, DC: APA.
- Barber, B. K., Bean, R. L., & Erickson, L. D. (2002). Expanding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263-289). Washington, DC: APA.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 Wilson, S. M. (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523-541.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12), 1003-1020.
- Campbell, J. D., & Di Paula, A. (2002). Perfectionistic self-beliefs: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and goal pursuit.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181-198). Washington, DC: APA.
- Conger, K. J., Conger, R. D., & Scaramella, L. V. (1997). Parents, siblings,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13-13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Flett, G. L., Hewitt, P. L., Boucher, D. J.,

- Davidson, L. A., & Munro, Y. (2000). The child and adolescent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and association with adjustment.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1), 37-46.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15(1), 27-33.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Isberg, R. S., Hauser, S. T., Jacobson, A. M., Powers, S. I., Noam, G., Weiss-Perry, B., & Follansbee, D. (1989). Parental contexts of adolescent self-estee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1), 1-23.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5), 1049-1065.
- Litovsky, V. G., & Dusek, J. B. (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373-387.
- Shafran, R., & Mansell, W. (2001). Perfectionism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of research an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6), 879-906.
- Shek, D. T. L.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1), 1-22.
- Shek, D. T. L. (2008).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parent-child relational qualities in early adolescents in Hong Kong: Parent gender, child gender and grade differences. *Sex Role*, 58(9-10), 666-681.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oenens, B., Elliot, A. J., Goossens, L.,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2005a).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erfectionism: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s an intervening variab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3), 358-366.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5b). Maladaptive perfectionistic self-representations: The mediational link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2), 487-498.
- Stoeber, J., & Childs, J. H. (2010). The assessment of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ubscale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577-585.

원 고 접 수 일 : 2012. 02.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6. 08.

최종게재결정일 : 2012. 06. 2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Esteem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Self-Oriented Perfectionism

Mi Gyeong Woo

Department of Psychology

Young-shin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esteem, as well a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elf-oriented perfectionism,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423 fifth- and sixth-grade children in the Daegu and Kyungpook areas of Korea. Children evaluated their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maladaptive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in four areas-general, social, family and school. Children tended to display lower self-esteem and higher maladaptive self-oriented perfectionism when they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o be high. Those exhibiting high maladaptive self-oriented perfectionism also tended to display lower self-esteem. Maladaptive self-oriented perfectionism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chool self-esteem.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high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s a poor parenting style for furthering children's healthy psychological development.

Key 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maladaptive self-oriented perfectionism, self-esteem, elementary school children*